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은,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

□ 한국은행은 ‘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’을 통해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.

- 완화적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,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하여 물가안정을 핵심과제로 내세움.
- 한은은 올해 물가불안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, 경기도 수출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꾸준히 증가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함.
- 완화가조의 장기화 가능성과 직접 맞물려 있는 금융경제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밝혀 저금리 상태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는 자세도 표시함.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단기적인 물가상승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함.

□ 단, 한은은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서두에 언급하고 세계경제의 상하방 위험요인의 추이에 따라 금융완화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긴축의 강도에 대해선 여전히 여지를 남김.

- ‘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’를 언급하여 견조한 성장도 역시 물가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.
- 미국의 경기회복, 중국의 긴축에 따른 불확실성,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상존해 이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즉각적인 금리인상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.

□ 결국, 한은은 올해 통화정책을 통해 작년보다는 긴축의 강도를 더 강화할 것이나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
-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격월 내지는 분기 단위 인상으로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임.

(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, 한은, 1/6)